

국제포교 특수전법인력 양성

비구니 대상 '해인사 외국어학림' 5월 22일 개원

법보총장 해인사주지 현승가 산내안 자인 고불암에 영어전문교육기관인 '해인사 외국어학림'을 5월 22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와 불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 포교와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할 특수전법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취지다.

2년제 전문교육기관인 해인사 외국어학림은 현대적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24시간 합숙훈련을 기본으로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며, 한국어는 별도로 정한 기간 중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전통 강원, 승가대학, 동국대를 졸업한 조계종 소속 비구니 스님으로서 지원자 중에서 15명을 첫 입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학림을 졸업한 스님은 향후 해인사와 조계종단이 필요로 하는 국제회의나 법회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번역, 국제포교와 교류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해외 유학 및 국제포교 활동에 필요한 종단적 지원도 받는다.

외국어학림은 한학기당 10주를 기본으로 1년을 4학기로 나누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기간은 3주가 주어진다. 수업은 정규수업과 특별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총 8시간의 정규수업이, 토·일요일에는 각각 6시간, 4시간의 특별수업이 열린다. 그 외 정규수업 후 학림 내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과 외부초빙강사가 정해진 주제로 특강을 하거나 해인사를 방문하

24시간 영어마을 형태로 운영
영문 불서 이해·동시통역에 중점
번역·국제교류 등 역할 담당

외국어학림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원어민 중에서 시간강사, 특강강사를 선발해 멀티미디어실과(다용도 활동실) 등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재 해인사는 외국어학림 개원을 앞두고 강의의 맡을 외국인 강사와 외국어학림에서 수학할 비구니스님들을 모집 중이다. 모집은 4월 20일까지. (055) 934-3095

는 외국인들의 안내를 통해 현장 실습도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의 정규수업과정과 문법, 토플·토포의, 불교학, 정보화 수업 등 특별수업과정으로 나뉜다.

1학년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며, 2학년은 고급문장의 읽기, 쓰기는 물론, 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을 이해하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정착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다.

외국어학림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원어민 중에서 시간강사, 특강강사를 선발해 멀티미디어실과(다용도 활동실) 등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재 해인사는 외국어학림 개원을 앞두고 강의의 맡을 외국인 강사와 외국어학림에서 수학할 비구니스님들을 모집 중이다. 모집은 4월 20일까지. (055) 934-3095

배지선 기자 jisun@buddhanews.com

615명 南불자 평화통일 염원

동화사, 5월 27일 금강산서 '남북화해...' 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화해 평화통일 기원 금강산 참배 및 해금강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동화사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봉행하는 이번 법회에서는 남측의 불자 615명이 참석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

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게 된다.

통일기원대법회는 5월 26일 대구를 출발해 통일전망대를 거쳐 육로로 금강산에 들어가며 27일에 동화사 주지 현대야산 김윤구 사장, 정영관 제9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화해 평화통일 공동 기원법회를 연다.

이어 28일에는 해금강으로 이동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방생법회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조류, 땅을 상징하는 동물, 물을 상징하는 어류를 방생, 못 생명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어렵게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 7월 속하고 함께 북핵 문제로 인해 일어붙은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녹이는 민간차원의 교류행사가 될 것"이라며 "신계사 복원 불사와 더불어 평화적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행사가 될 것" 이번 법회의 의미를 전했다.

배지선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25일쯤 가능

부산녹색연합, 산 정상 공원화 반대 성명 발표

천성산 환경조사가 4월 25일을 전후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을 스님 측 공동조사 전문가들은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5일 경 공동조사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질 조사를 실시할 공사업체 선정에 시간

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4월 25일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이룬 생태대, 구조 및 지질, 지하수, 암반 분야와는 별개로 지구물리분야는 추후에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3월 24일 양산시가 천성산 정상 일

대 공원조성계획을 공개하자 부산녹색연합이 3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녹색연합은 "보호해야 할 습지가 있는 정상 부근에 3만평 규모의 해맞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양산시의 계획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원을 통한 개발보다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히 습지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천성산의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양산시는 천성산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산시가 개발하려는 정상 부근은 지로 피해지역에서 공원으로 부처적하다"고 지적했다.

천미희·유철주 기자

대구교사불자회 봉사단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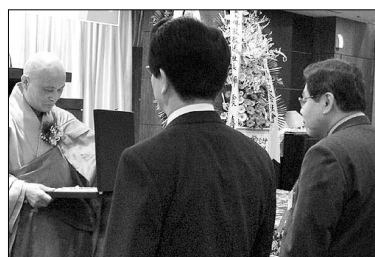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신연섭)는 3월 29일 저녁 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대구불봉사단을 발족했다.

대구불봉사단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행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매달 2차례 불교계 복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불봉사단은 첫 봉사료 4월 2일 불교사회복지회 여래원의 치매노인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4주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운환)는 3월 26일 부산 크라운호텔 목련홀에서 정관장님을 법사로 창립 1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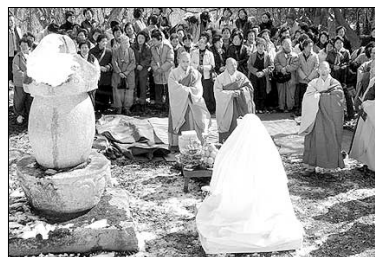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대각사 주지 흥교 스님, 감포사 주지 혜승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회 김정태 前 회장과 앞서간 회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김운환 회장은 "발보리심의 굳은 신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실행과 사회 참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강병중 부산방송 회장, 서준석 중앙병원 원장, 박수복 대륙금융 대표이사, 하문원 호산 G.N.D 대표이사 등 명망있는 지역실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행단체다.

천미희 기자

성운 스님 추모제·부도 제막



부산 기장군 해광사주지 혜성은 1998년 법랍 64, 세수 80세로 입적한 해광당 성운 스님의 부도 제막식을 3월 29일 봉행했다(사진).

성운 스님 입적 7주기 추모제와 함께 열린 이날 부도 제막식에는 성운 스님의 상좌 혜성 스님, 범어사 기획국장 정산 스님, 성왕사 주지 승호 스님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재)범어청소년동네가 부산시에서 수탁, 4월 7일 개관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

애들이 힘들지? '끼' 발산해봐

범어청소년동네, 금정청소년수련관 수탁

(재)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대성)가 부산시에서 수탁, 4월 7일 오후 1시 30분 개관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은 청소년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감성 문화 작업 수련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소년들의 삶을 재인지(change)하고 문화를 플러스(plus,+)하겠다는 각오로 범어사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을 학교 교육의 스트레스에 지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범어청소년동네가 금정청소년수련관을 수탁받음으로써 5개뿐이던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 더 보태진다. 6개 청소년 수련시설 중 3곳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상호 연계 사업 실시, 정보 교류 등의 시너지 효과로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00여 평 대지에 건평 74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금정구청 청소년수련관은 탈학교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청소년 문

화사업 등 도시형 대안교육 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 운영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청소년 자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금정청소년수련관이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문화 공동 작업, 청소년들이 캐릭터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된다. 특히 음악 스튜디오를 설치, 학급 음반 제작 등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 스님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또 행복과 마음의 휴식을 만끽하는 공간이 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1)581-2070 천미희 기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7주년

개관 7주년을 맞은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이 3월 23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화과 김응철 교수를 비롯해 봉사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관장 상덕 스님은 "전통성을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사회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옥수 복지관 우수 직원 상장 수여식과 떡 나눔,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영천 충효사 포항서 방생법회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3월 21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서 '생명사랑 자비실천 춘계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일본 독도 침탈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독도 수회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방생대법회에 참석한 신도 7천여명은 '일본 독도 침탈 규탄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게 의해 침탈된 이래 1500여 년간 이어져온 우리 고유 영토"라고 천명하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제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배지선 기자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아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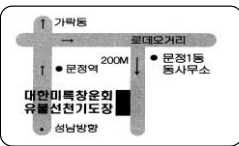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인명의 영문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예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